

IP 2016-02

대학원 발전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박선형

2016년 8월



교육부 지정
고등교육정책연구소
Higher Educ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IP 2016-02

대학원 발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박선행(동국대학교)
공동연구자: 조영하(경희대학교)
 서화정(영남대학교)
연구협력관: 최지웅(교육부)
 박수민(교육부)

2016년 8월



교육부 지정
고등교육정책연구소
Higher Education Policy Research Institute

이 연구는 교육부의 중점연구소지원사업비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연구결과 요약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지식근로자의 실천적 경험과 고부가가치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지식 기반경제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집단 공유적 활용과 혁신적 적용을 적극 유도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 고등교육 발전 단계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의 고등교육체제는 대학 진학률 80% 이상이 말해주듯 소수 지배 계층과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두는 엘리트 교육 단계가 아닌 전체 사회계층 대상의 시민교육을 보장하는 범용형 교육체제에 이미 진입한 상태임
-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체제의 질적 수준과 운영결과는 선진외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뒤쳐져 있는 상황임
-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기존의 주요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대학원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학원 비전과 전략을 구안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원 정책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대학원 현황 분석 및 문제 진단

- ‘고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학원 설립유형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제2항 등에 의거 그 주된 교육목적 따라 대학원 설치 구분 기준을 달리 규정하여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함
- ‘고등교육법’은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의 목적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학원 운영에 있어 본래 목적의 상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야기
-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으로 인해 대학원수 및 입학생수는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지만 우수 인적 자원의 연쇄적 유출로 인한 질적 저하의 악순환이 발생함
-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진단 시스템이 미비하고, 대학원을 포함한 재정

지원 사업 등 대학원의 질적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이 부재함

- 각 국가의 대학원 교육 및 연구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 장기적이고 폭넓은 지원정책으로 대학원이 자생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원 연구력을 강화한다는 점, 프로그램의 조직 및 운영 면에 있어서 참여 교원 간, 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간 연계와 협력을 장려한다는 점, 대학원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환경의 정비를 통한 대학의 질 제고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대학원 비전 설정 및 전략

- 21세기 한국사회는 1) 학령인구의 급감과 초고령화의 도래, 2) 글로벌 경제의 통합과 지식기반경제의 심화 그리고 이에 따른 대학원 교육의 필요성 증가, 3)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습득 및 학습활동 간의 연계성 강화, 4) 대학원 교육의 평생학습기능 대두, 5) 융합기술과 학문의 발달로 인한 실용학문탐구경향의 증가, 6) 분권화와 개방화에 따른 대학원 정책거버넌스의 자치·자율화, 7) 국제교류와 협력의 보편화에 따른 대학원 교육의 글로벌화라는 대학원체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발전과 이익에 부응하는 대학원체제란 국제표준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국내의 사회요구에도 부응하는 체제일 것임.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 발전의 비전을 “학위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원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정의할 수 있음
- 대학원체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추진방향과 전략은 세계수준의 교육·연구경쟁력 확보,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대학원 정체성의 재확립, 수월성 중심의 개방형 학문공동체 구축, 정부의 대학원 재정지원정책의 기조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글로벌 경쟁력과 로컬 내구력 확보를 지향한 대학원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및 관리체제는 큰 틀에서 1) 질 관리, 2) 자율화, 3) 지속가능한 재정지원(평가)을 지향하여야 함

□ 대학원 정책 발전 방향

- 대학원 개선 기본 방향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을 갖춘 대학원 육성, 국제화를 통한 질적 도약,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체제 구축, 대학원 질 관리 기반 마련으로 정리할 있음
-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을 갖춘 대학원 육성 방안은 (질적 개선 전략)비교우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 (학술 진흥 전략)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 기반 제공, (양적 조정 전략)대학원 중심 학사구조 조정을 제시함
- 국제화를 통한 질적 도약 방안은 교육시장 확대 전략, 국제적 교두보 (Gateway) 전략, 프론티어(University frontier) 전략을 제시함
-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체제 구축방안은 산학협력의 지평을 학부에서 대학원 수준으로 확대, 대학원생의 기술창업 촉진, 전문대학원 설치·운영 자율화, 특수대학원 총 정원제 허용, 전문/특수대학원 통합 검토 (장기과제)를 제시함
- 대학원 질 관리 기반 마련 방안은 대학원 평가, 대학원 정보 공개 강화, 대학원 정보 공개 강화, 규제완화를 통한 대학원의 자율 발전 기반 마련을 제시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1. 연구 방법	3
II. 대학원 현황 분석 및 문제 진단	5
1. 국내 대학원 일반 현황	5
2. 국내 주요 선행연구 결과 요약 및 문제점	8
3. 외국의 대학원 개혁 사례 및 시사점	20
III. 대학원 비전 설정 및 전략	26
1. 대학원 발전을 위한 비전 체계	26
2. 대학원 발전을 위한 목표: 정책적 지향 가치와 전략	28
3. 대학원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정책 추진 원칙과 방향	32
IV. 대학원 정책 발전 방안	36
1. 대학원 개선의 기본 방향	37
2. 국제화를 통한 질적 도약	39
3.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체제 구축	41
4. 대학원 질 관리 기반 마련	44
<참고문헌>	47

표 목 차

<표 I-1> QS 세계대학평가의 200위 이내 국내 대학 현황	2
<표 II-1> 대학원 유형별 설치 구분 기준	5
<표 II-2> 대학원 유형별 설치 현황 추이	6
<표 II-3> 대학원 과정별 인원	6
<표 II-4>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15년 기준)	6
<표 II-5> 석사 학위자의 지역별-계열별 진학률 ('15년 기준)	7
<표 II-6> 대학원 학위별-계열별 취업률 ('14년 기준)	7
<표 II-7> 졸업 후 해외 취업 및 이주 계획	8
<표 II-8> 대학원 연구 동향	8
<표 II-9> 대학원 운영 현황 분석과 발전방안 도출 관련 주요 선행연구	10
<표 II-10> 주요 선행연구 결과	11
<표 II-11> 대학원 교육 관련 주요 선행연구의 공통 특징	19
<표 III-1> 대학원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가치	32
<표 IV-1> 대학원 중심 학사구조 조정(안)	39
<표 IV-2> 대학원대학 학사 관리 지원 방안	46

그 림 목 차

[그림 Ⅲ-1] 대학원발전 비전 체계	27
[그림 IV-1] 대학원 개선 기본 방향	36
[그림 IV-2]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구조(안)	37
[그림 IV-3] 단계별 국제화 전략 방안	40
[그림 IV-4] 전문대학원 운영 개선 모형	4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지식근로자의 실천적 경험과 고부가가치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지식기반경제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집단 공유적 활용과 혁신적 적용을 적극 유도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Florida, 2002; Hawkins, 2001)

-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의 실제 적용 가능성”으로 대변되는 창조경제는 고정비용과 가변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경제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으로서 경제성장의 지속발전 가능 수단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해당 국가나 사회의 생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임(OECD, 2014)

□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환경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세계 각국은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구성원 삶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창의혁신적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적 수준에서의 R&D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체제의 질적 수월성과 관리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 복잡한 환경여건과 예측 불가능한 경제현실에 있어서 국가의 미래적 발전은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혁신 역량을 지닌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질 높은 양성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임

□ 고등교육 발전 단계의 시각(Trow, 1973)에서 보면, 한국의 고등교육체제는 대학 진학률 80% 이상이 말해주듯 소수 지배 계층과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두는 엘리트 교육 단계가 아닌 전체 사회계층 대상의 시민교육을 보장하는 범용형 교육체제(Universal-Access System)에 이미 진입한 상태임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의 보편화와 일반화 추세 및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으며, 대학원의 규모 역시 급속하게 증대되어 왔음(이석렬 외, 2015)
 - 대학원 재학생 수는 1980년 33,939명에서 2015년 333,478명으로 30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학위 취득자도 5,552명에서 94,741명으로

- 약 17배나 증가하였음(한국교육개발원, 2015)
- 이러한 증가 추세는 지속되어 2015년 현재 1,197개 대학원(특수대학원 813개, 전문대학원 201개, 일반대학원 183개)의 입학생 수가 129,201명에 이르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인구 1만 명당 대학원 입학자는 25.03명으로 일본의 2.7배에 이르고 있음
 - 국내 대학원에서 배출한 박사는 2000년에 6,153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11,525명으로 지난 15년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구 1만 명당 연간 박사학위 취득자가 2.2명으로 독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숫자임

□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체제의 질적 수준과 운영결과는 선진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뒤처져 있는 상황임

-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1위, IMD 국가경쟁력지수는 2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과학기술분야 지식 및 기술개발의 핵심 잠재역량 지표인 SCI논문 피인용 상위 1% 논문 건수 국가 순위는 2014년 기준으로 세계 13위,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수 및 인용도는 OECD 30개국 중 29위에 불과함(미래창조과학부, 2016)
- 2015년 기준 The Times-QS 평가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대학은 서울대 36위, KAIST 43위, 포스텍 87위 단 3개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국내 대학(원)의 경쟁력이 하위권이며,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예증함

<표 I -1> QS 세계대학평가의 200위 이내 국내 대학 현황

(단위 : 순위)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대	42위	37위	35위	31위	36위
카이스트	90위	63위	60위	51위	43위
포스텍	112위	97위	107위	86위	87위
연세대	129위	112위	114위	106위	105위
고려대	190위	137위	145위	116위	104위
성균관대	-	179위	162위	140위	118위
한양대	-	-	-	-	193위
200위 이내 국내대학 수	5개	6개	6개	6개	7개

※ 자료: 2015 QS세계대학평가
(<http://www.topuniversities.com/qs-world-university-rankings>)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인력 육성과 창조경제 사회 구현에 필요한 융합·혁신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과 정책실행 및 발전방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 종합 발전방안」 발표('13.8월),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발표('14.5월), 대학원 진단·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14.9월 ~ '16.2월)를 수행한 바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기존의 주요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대학원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학원 비전과 전략을 구안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원 정책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대학원 현황 분석 및 문제 진단

- 국내 대학원 일반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선행연구 결과 요약 제시
- 외국의 대학원 개혁 사례 및 시사점

□ 대학원 비전 설정 및 전략

- 대학원 발전 비전 체계
- 대학원 발전 목표
- 대학원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정책 추진 원칙과 방향

□ 대학원 정책 발전 방안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 대학원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다룬 주요 선행연구 결과 확인

- 서정현 외(2003), 민경찬 외(2010), 신현석 외(2011), 박영범(2012), 송창용·이은혜(2013), 서민원(2014), 이석열 외(2015)

- 미국, 일본의 주요 관련 사례 분석

☐ 전문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대학원 기능 확립과 특성화 발전방향 정립, 학위체계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 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질 관리 체계 및 인증평가 실행 등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심층면담

- 대학원 주요 보직자와 직원 대상의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대학원 발전방안의 현실 적합성 확인

Ⅱ. 대학원 현황 분석 및 문제 진단

1. 국내 대학원 일반 현황

- ‘고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대학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학원 설립유형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제2항 등에 의거 그 주된 교육목적 따라 대학원 설치 구분 기준을 달리 규정하여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함(<표 Ⅱ-1> 참조)
- 일반대학원은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고, 전문대학원은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함. 또한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함

<표 Ⅱ-1> 대학원 유형별 설치 구분 기준

구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설립목적 (고등교육법 제29조의 제2항)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전문 직업 분야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학위과정 (시행령 제22조)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원칙), (박사과정 설치 가능)	석사과정
수여학위 (시행령 제46조)	학술학위	전문학위 (학술 학위 수여 가능)	전문학위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 고등교육의 보편·일반화에 따라 대학원 수 및 입학정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원수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짐(<표 Ⅱ-2> 참조)
- 구체적으로 대학원 유형별 대학원수를 살펴보면, '15년 기준 특수대학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05년 이후 '15년 현재 전문대학원수가 약 2배정도 증가하였음. 대학원 유형별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15년 기준 일반대학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2> 대학원 유형별 설치 현황 추이

구분	대학원수 (개)				입학정원 (명)			
	'05	'10	'15	증가율 ('05대비)	'05	'10	'15	증가율 ('05대비)
일반대학원	145	167	183	26.2%	57,581	57,562	63,615	10.5%
전문대학원	130	199	201	54.6%	8,041	14,457	15,951	98.4%
특수대학원	776	772	813	4.8%	58,289	54,726	51,159	-12.2%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 대학원 과정별 인원은 '05년 이후 재학생을 기준으로 석사과정보다는 박사과정의 증가율이 높음

<표 II-3> 대학원 과정별 인원

구분	석사과정 (명)				박사과정 (명)			
	'05	'10	'15	증가율 ('05대비)	'05	'10	'15	증가율 ('05대비)
입학생	92,151	105,731	103,047	11.8%	16,104	21,227	26,154 (5,210)	62.4%
재학생	238,753	263,100	260,920	9.3%	43,472	53,533	72,558 (16,529)	66.9%
졸업생	68,439	77,328	81,664	19.3%	8,602	10,542	13,077 (1,552)	52.0%

※ 석·박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포함(구분 통계가 있는 경우 괄호로 명기)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 대학원 신입생(정원 내 기준) 충원율은 ('15년 기준) 석사 87.5%, 박사 90.2% 수준임
-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더 낮으나,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지방의 충원율이 더 높음

<표 II-4>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15년 기준)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입학정원	정원 내 입학생	신입생 충원율	입학정원	정원 내 입학생	신입생 충원율
전체	105,227	92,034	87.5%	25,495	22,994	90.2%
수도권	57,994	52,004	89.7%	14,245	13,073	91.8%
지방	47,233	40,030	84.8%	11,250	9,921	88.2%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 석사 학위자의 졸업 후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14년 기준), 석사 학위 졸업자의 진학률은 5% 수준이며, 수도권이 4.6%, 지방이 5.6%로 지방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 구체적으로는 지방의 공학, 자연계열의 진학률이 높으며, 사회, 교육계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II -5> 석사 학위자의 지역별-계열별 진학률 ('15년 기준)

구분	전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전체	5.0%	7.6%	2.6%	1.5%	8.5%	10.8%	3.8%	5.2%
수도권	4.6%	8.3%	2.9%	1.6%	5.7%	8.7%	3.7%	4.2%
지방	5.6%	6.8%	2.3%	1.4%	11.2%	12.8%	3.9%	6.1%

자료: 송창용·김유미·김혜정(2015) 석·박사조사(2015): 국내 신규 석·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 학위별 취업률은 ('14년 기준) 석사 76.5%, 박사 79.7%로 높은 수준임
- 기초학문(인문, 자연) 및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으며, 인문계열은 석사 취업률보다 박사 취업률이 더 낮음

<표 II -6> 대학원 학위별-계열별 취업률 ('14년 기준)

구분	전체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석사 학위	76.5%	59.0%	76.7%	76.8%	82.2%	74.5%	88.4%	55.1%
박사 학위	79.7%	49.6%	79.3%	81.3%	86.8%	75.9%	87.6%	66.0%

자료: 송창용·김유미·김혜정(2015) 석·박사조사(2015): 국내 신규 석·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 학위 취득 후 해외 유출률은 석사 10.5%, 박사 17.2% 수준임. 특히 박사졸업 후 해외 장기 체류 및 미복귀 계획은 약 5% 수준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석사과정 11.1%, 박사과정 17.6이고, 비수도권이 석사과정 9.6%, 박사과정 16.7%로 나타났음.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해외 유출률이 높게 나타났음

<표 II-7> 졸업 후 해외 취업 및 이주 계획

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해외 이주 계획	체류 기간	
			4년 이내 체류 계획	5년 이상 체류 계획
전체	10.5%	17.2%	11.9%	5.1%
수도권	11.1%	17.6%	11.9%	5.5%
비수도권	9.6%	16.7%	11.8%	4.7%

자료: 송창용·김유미·김혜정(2015) 석·박사조사(2015): 국내 신규 석·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2. 국내 주요 선행연구 결과 요약 및 문제점

가. 선행연구 분석

□ 이정미 등(2013)은 대학원 연구의 동향을 “대학원 교육-연구의 질 개선, 대학원 재정지원사업, 석·박사급 인력의 수급 및 노동시장 이행, 대학(원)의 유형화”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연구물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개괄한 바 있음

<표 II-8> 대학원 연구 동향

연구동향	주요내용 및 특징	연구물
대 학 원 교 육 - 연 구 의 질 개 선 을 위 한 연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유형별 특성화 및 기능 확립이 미흡하여 유형에 따른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대학원과정의 질 관리 미흡 및 학위의 국제적 통용성이 낮고, 대학원이 공급하는 인력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의 양적, 질적 불일치 현상이 증가함 ○ 대학원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토대로 그 동안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의 실천을 도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상진 외(2004).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 분석 연구 - 서정현 외(2006). 대학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체제 개편 및 제도 개선 시행방안 연구 - 박부권 외(2007). 대학원 학위 질 제고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Issue Paper - 신현석 외(2008).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대학원 교육의 질 만족요인 탐색 - 신현석(2011). 대학원 체제의 미래 비전과 추진방안 탐색 - 신현석 외(2011). 박사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민철구 외(2008). 대학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교육·연구 연계·정책연구 - 송창용 외(2012a). 대학원의 교육·연구 경쟁력 확보 방안 - 허준행 외(2012). 연구와 교육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연구

<p>대 학 원 재정지원 사업 연 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재정지원사업 관련 연구는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의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수행 ○ 사업평가연구들은 각 재정지원 사업들의 성과 및 효과를 평가 또는 분석하면서, 대학원 교육 및 연구 역량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의 방안을 탐색하고 이에 적합한 재정지원사업의 모델을 구안하는 데 중점을 둠 ○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부의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원의 교육 또는 연구 어느 한 영역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의 연계 및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섭 외(2010). 대학(원) 재정지원 개선·통합연구 - 김희삼 외(2012). 글로벌 EXCEL 사업 및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 박경호 외(2012).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에 관한 추론적 연구: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사례
<p>석·박사 급 인력 의 수급 및 노동 시장 이 행 관련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대학원과 산업계 간 인력의 수요·공급의 양·질적 불일치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이는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사회적 비용 증대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학력 수준과 산업 분야별 정확한 인력 수급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대학원이 배출하는 인력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의 양·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석·박사급 인력의 수급 예측에 관한 연구가 최근 다수 수행됨 ○ 석·박사급 인력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조사 또는 연구도 최근 증가하는 추세 ○ 석·박사급 인력의 교육, 진학, 취업, 경력 등의 광범위한 노동시장 이행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그 성과를 분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가원 외(2011). 2010 박사인력의 경력과 이동성조사 - 삼성경제연구소(2012). 과학기술 핵심인재 10만 양병을 위한 제언 - 이의규 외(2012). 고등교육 인재정책 수립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연구(Ⅱ)

대학(원)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의 특성화를 위한 논의의 기반으로 대학(원)의 유형화에 관한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짐 ○ 류지성 외(2006)는 재원시장 및 노동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대학이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대학의 목적과 학문 분야, 지역범위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 ○ 민철구 외(1997)는 이공계 대학연구의 활성화 방안 중 대학 특성화를 제안하면서, 연구중심 단설대학원, 대규모 대학원 위주의 연구중심대학, 대학원 병설 교육중심대학, 학부위주 교육중심대학, 기술중심대학으로 분류 ○ 권기석(2009)과 엄미정 외(2010)는 대학 유형을 소재지, 규모, 설립유형에 따라 각 10개, 9개 유형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지성 외(2006). 대학혁신: 7대 유형별 전략 - 민철구 외(1997). 이공계 대학연구의 활성화 방안 - 권기석(2009). Research and Knowledge-Transfer Activities of Different Type of Korean Universities. - 엄미정 외(2010). 산학연협력 선진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연구
-------------------	--	---

※ 출처: 이정미 외(2013: 34, 37, 40, 43을 통합)

□ 이정미 등(2013)의 연구는 “대학원 유형별 특성화 및 기능 확립 미흡, 대학원과정의 질 관리 미흡과 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부족, 대학원 공급인력과 산업계 요구인력간의 부적합 현상” 등의 대학원 운영현황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지만, 주요 연구가 제시하는 상세한 내용은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대학원 교육체제의 한계점 및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표 II-9>와 같이 고등교육 분야 특히, 대학원 교육 관련 제도 실행과 정책실행의 참조기제 및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던 주요 선행연구와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II-9> 대학원 운영 현황 분석과 발전방안 도출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저자 (년도)	보고서/논문 제목
서정헌 외(2003)	대학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 체제 개편 및 제도개선 시행방안 연구
민경찬 외(2010)	대학원 교육 선진화 방안 연구
신현석 외(2011)	대학원 체제의 미래 비전과 추진방안 탐색
박영범(2012)	대학원의 교육·연구 경쟁력 확보 방안
송창용·이은혜(2013)	대학원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를 위한 학위제도 개선방안
서민원(2014)	대학원대학 질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이석렬 외(2016)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마련 방안 연구

<표 II -10> 주요 선행연구 결과

저자 (년도)	대학원 교육의 문제점	발전방안 및 정책 제언
서정현 외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체제상의 취약성, 대학원 유형에 따른 이념과 기능의 혼란, 대학원 특성에 맞는 설치기준 미흡 ○ 대학원 학위에 대한 불신, 학위와 직업자격간의 연계 부족, 학위제도의 질관리 부재, 학위 명칭의 불명료성 등으로 인한 대학원 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문제 (V) ○ 정부조직상에서 부처별 대학원 지원 업무의 조정 미흡 ○ 일반대학원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양적 팽창에 따른 질 관리와 연구여건 미흡 ■ 논문지도 및 심사 방법에서 엄격성을 유지하지 못하며, 학위종류와 명칭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고 논문표절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 ■ 석·박사 학위소지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구인난과 실업이 공존하는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 현상과 기업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숙련불일치(skill mismatch) 현상 발생(일반대학원 졸업생의 취업률은 약 70%) (V) ○ 전문대학원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체성 혼란으로 육성 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양적 팽창 변화에 따른 질 관리와 전문대학원의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태 ■ 교류 및 상호 협력이 부족한 실정 ■ 설립요건이 엄격하지 않고, 자체 여건이 열악하여 학위논문제출을 위한 자격 관리가 미흡 ■ 교수의 강의 부담 과중 및 지도논문의 과다로 인해 논문지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제도 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관련 법령의 보완(단기): 대학원 종류별 대학원의 교수배치, 시설확보 등 법령상 설치기준을 보완 ■ 고등교육 전담기구 신설(단기):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협의 조정기구 및 이를 지원하는 고등교육 전담기구 신설 ○ 대학원 분류 체계 개선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단기): 대학원 유형별로 수여학위, 설립요건, 교육과정, 학위 취득 요건, 입학자격 등을 명시하여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의 기능 및 역할 명확하게 구분 ■ 일반/전문대학원 이원 체제로 전환(중기):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통합하여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이원체제로 운영 ■ 법령상 대학원 유형 구분 폐지(장기): 대학원 유형 구분을 폐지하여 프로그램 차원에서 수여학위, 교육과정, 학위 취득 요건을 다양하게 하여 미국의 school식으로 운영 ○ 대학원 질 관리 체계 구축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설립요건 강화(단기): 대학원 설립 준칙주의 강화, 박사과정 신설시 사전 심의제도 도입, 박사과정 정원 감축계획 수립 실시 ■ 대학원 교육 여건 강화(단기): 대학원 자체 여건 강화 및 GDP대비 정부지원 대학연구비 확대 ■ 대학원 평가제도 도입(단기): 국제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국가차원의 총괄·조정 기제로서 평가인증기관 설립 추진 ■ 정보공시제 도입(단기): 정보공개 추진체제의 정비, 공개 대상 정보의 결정, 정보수집 효율성 제고 및 공개 정보 활용

	<p>내실화 미흡</p> <p>○ 특수대학원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 신설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학생 정원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없어 특수대학원의 기능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음. ■ 다른 대학원과의 구분은 단지 학위과정 및 학위종류의 차이뿐임. ■ 교수 1인당 학생 수나 시간강사 의존율이 매우 높아 실제적인 논문지도에 어려움이 있음. ■ 일반전형에 비해 특별전형의 비율이 높음(경쟁률은 약 1.71:1). ■ 취업률은 약 87%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과정 및 관리제도 개선(단기): 학위 논문 지도.심사에 관한 대학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학위과정 운영 및 관리제도 개선 <p>○ 학위체제의 국제화 및 직업자격과의 연계 구축 (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논문의 연구 윤리 제고(단기): 학위논문의 연구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논문 DB 시스템 구축 ■ 학위명칭의 표준화(단기): 학위의 구분은 대학원의 종류에 따라 일반대학원(학술 학위), 전문대학원(전문 학위), 특수대학원(실무 학위)으로 구분하고, 학술-전문-실무 학위별 명칭 및 영문표기 기준 제시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학위 인증 체제 구축(중·장기): 학위의 구분을 표준화하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학위 인증 체제 구축 ■ 대학원 학제 운영체제 개편(중·장기): 대학(원) 교육체제가 세계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점, 학위 및 자격 등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목표기준(standard)을 설정하여 제시 ■ 교육자격과 직업자격의 연계 체제 구축(중·장기): 교육자격과 직업자격을 연계한 학위제도가 가능하도록 대학원 학제 운영체제 개편 ■ 대학원 학제 운영체제의 다양화(중·장기): 대학(원) 학제 운영을 학문지향 track과 직업지향 track으로 구분
민경찬 외 (2010)	<p>○ 대학원 교육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국제경쟁력 ■ 법 체계의 난립 (V) ■ 정체성 및 국제적 통용성 미흡 (V) ■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미흡 ■ 현 3개 대학원 유형 구분의 한계(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V) <p>○ 대학원 질 관리 문제 (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p>○ 대학원선진화 정책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특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교육 선도 모델 개발·운영 지원 - Post Doc 제도 활성화 ■ 대학원 학사 및 평가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입학 조건 강화 - 유저(User)를 고려한 대학원 전공별 평가체제 구축 - 석·박사 학위과정의 설치기준 강화 - 대학원 교육체제 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평가인증제 미정착 ■ 대학원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평가 미흡 ■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월성 제고와 거리가 있는 평가 <p>○ 대학원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 (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사업의 상당부분이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인력양성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사업단 대상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 	
박영범 (2012)	<p>○ 급속한 양적 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 수가 급속히 증가 ■ 과다한 석·박사 인력배출 ■ 학술학위와 무관한 특수대학원 석사학위자가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 대학원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대학은 부족 ■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박사인력은 전체의 24.9%에 불과함 <p>○ 수급의 불일치와 핵심인재 양성 부족 (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인난과 실업이 공존하는 일자리 불일치 현상 ■ 핵심인재의 양성 부족 ■ 기초과학과 범용공학 전공 부족이 문제 <p>○ 대학원 질 관리 체제 미흡 (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학위과정 및 논문의 질 관리에 소홀 ■ 대학원의 질관리 체제가 독자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 <p>○ 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 (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는 OECD 평균에 70% 수준 <p>○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로 유입되는 학생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이 많은 상황으로 인한 대학원의 경쟁력 저하 	<p>○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원 육성 (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쟁력 갖춘 분야별(전공별)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원을 집중 육성 ■ 석박사급의 창의적 인재육성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제고 <p>○ 대학원 교육 선도모델 개발과 지원(가칭 G-ACE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대학원 유형별로 학술연구, 융·복합 전문교육, 평생교육, 경력관리 등 특정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구현 ■ 각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대학원 교육 선진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대학원 전체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 <p>○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대학원 공시제도 강화 (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체제의 질적 개선과 수월성 제고를 도모하여 대학원 경쟁력 향상 ■ 대학원의 학사관리, 제도, 운영 등 대학원 내부적 요소와 재정지원 연계 등 대학원 외부의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정보공시 체계 구축 <p>○ 대학원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원 경쟁력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신설, 석·박사과정 설치 및 대학원별 운영 요건을 강화하여 대학원 경쟁력을 제고 ■ 대학원의 유형화(연구중심대학원, 교육중심대학원, 평생학습형대학원)에 따른 대학원 운영조건 강화를 통해 자율적인 구조개혁 촉진

<p>송창용 , 이은혜 (2013)</p>	<p>○ 학위제도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 ■ 국내 대학원은 급변하는 사회 요구를 반영하는 전공 편제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취약 (V) ■ 학과·전공 중심의 배타적 전공 학위취득 체계로 인해 융·복합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 양성에 어려움 존재 ■ 현장 중심, 실무 중심 교육의 부재로 인해 대학원 학위와 직업 간의 연계가 부족(v) 	<p>○ 대학원 학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대학원 교육 재정지원 강화 (V) ■ 노동시장의 수요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학위 과정 운영 (V) ■ 전공 간, 학위·비학위 간의 폐쇄적이던 대학원 학위 운영 개방 ■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 중심의 강소형 대학 컨소시엄 구성 ■ 현장 중심적인 전문실무학위 활성화 (V)
<p>서민원 (2014)</p>	<p>○ 대학원대학의 운영현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대학원의 경우, 박사과정을 개설할 수 없고 정원규모가 소규모임. 따라서 설치의 의미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운영상 규모의 한계가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지방대학이 수도권에 진출할 수 없음에 따라, 수도권 진출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원대학의 특성에 따라 대학원 편제정원이 큰 차이를 보임. 특히, 편제정원의 증가추이가 대학원대학의 경쟁력과 비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대학원대학의 특성에 따라 정원 대비 입학생수 미달률에 큰 차이를 보임. 이러한 미달률의 차이가 교육의 질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외국인유학생 관리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교육의 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축적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비록 소수의 박사과정 입학생이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p>○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될 수 있는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정비 (V) ■ 대학원대학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체제 설립 ■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충족시킬 수 없는 전문분야의 인력양성에 초점을 둔 분명한 차별화 ■ 설립심사 시 수도권정비계획 저촉 여부 심사 강화 및 수도권 인가비율 설정 및 제한을 둔 엄격한 심사 필요 ■ 대학원대학 설립인가 심사 시 학문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설립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층 심의 강화 ■ 외국인유학생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대학에 대해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 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업 및 논문지도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반드시 준수하도록 유도 ■ 투명한 회계 및 결과 공개를 통해 대학원대학의 합리적 재정운영 및 사회적 신뢰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대학의 특성에 따라 재학생수 규모에 현저한 차이를 보임. 이러한 원인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이 외에도 여러 문제점들을 제시함. 	
이석열 외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관련 법 체계의 비체계성과 모호성 (V) ○ 대학원 인력양성을 위한 재정지원제도의 미흡 (V) ○ 대학원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체제 미흡 (V) ○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 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미흡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교육에 있어서의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 ■ 교육과 학습 관리가 미흡 ■ 대학원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투자가 매우 부실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를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평가체제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를 지향하여 교육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대학원평가체제 도입과 운영을 통해 대학원 스스로 자체 혁신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지원·촉진하는 정책방향 지향 ■ 정부가 대학원평가체제로 대학원에게 지나친 행·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방향이 아닌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대학원평가체제 운영 도입이 대학원 유형별 특성화, 대학원 유형별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대학원평가체제 운영 과정에서 대학원평가도 인증제를 도입을 위한 인증제 평가의 신뢰성, 타당성, 투명성 등을 확보 (V) ■ 대학원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 신뢰와 만족, 그리고 성장임을 강조함으로써 대학원이 성인학습자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대학원평가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대학원 학사관리방침을 전향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의 대학원평가 대비와 대학원 교육 발전 모색을 위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대학원평가체제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학원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

저자 (년도)	메가트렌드에 따른 대학원 요구분석	발전방안 및 정책 제언
신현석 (2011)	<p>○ 2030 메가트렌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 글로벌 경제 통합 및 지식기반 경제의 심화 ▪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에 따른 소통구조의 변화와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다양화와 개성화 ▪ 분권화·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 국제교류 및 협력의 보편화 ▪ 융합 기술·학문의 발달 <p>○ 미래 대학원체제에 대한 요구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도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 ▷ 고급인력의 양성·활용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국제화를 통한 대학원의 역량 강화 ▷ 대학원간 역할 조정과 연계협력체제 구축 ▪ 행정/운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학원 및 학사제도 운영 ▷ 대학원 경영개선을 통한 효율화 ▷ 자율과 책무에 바탕을 둔 대학원 운영 ▷ 고등교육 거버넌스의 혁신 ▷ 평생학습사회에 부합하는 학위체제 개편 ▪ 교육체제 측면 	<p>○ 미래대학원 체제의 비전과 과제</p> <p>가. 비전</p> <p>: 미래 대학원 변화에 부합하고 대학원 체제의 미래 요구들을 포괄하는 미래 대학원 체제 비전으로서 <u>'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대학원 체제의 구축'</u>을 제시함</p> <p>나. 목적과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 유형에 따른 이념과 기능의 명료화(투입목표) 2.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와 제도 운영의 합리화(과정목표) 3.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학위수준의 국제화(산출목표) 4.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고급인적자원의 양성(결과목표) <p>다. 추진전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 유형의 단순화와 트랙의 다양화 2. 대학원 교육 질관리의 차별화와 지속성 강화 3. 대학원 제도 운영의 자기조직화와 자기조정능력의 강화 4. 학위체제의 다양화와 국제화 그리고 직업자격 간의 연계 강화 <p>라. 추진방안 및 과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 유형과 기능 명료화를 위한 대학원 분류체계의 개선 (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전문대학원의 이원체제 구축 (V) (2) 고급인적자원의 인력수급체제 구축 2. 학위수준 제고를 위한 대학원 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교육이념 및 기능의 재정립 ▷ 교육내용의 산학연계 강화 ▷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의 구축 ▷ 국내외 공동 교육체제 구축 ▷ 대학원 졸업제도의 질 관리 강화 ■ 인프라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인적자원의 양성·관리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 교육·연구여건의 개선 및 지원인프라 구축 ▷ 교수 인사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재정지원과 방식의 변화를 통한 효율성·공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 교육의 질 보증체제 구축 (2)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의 내실화 3. 자치 거버넌스에 부합하는 대학원 제도운영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원 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와 조직의 정비 (2) 고등교육 전담기구의 설치 4. 맞춤형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원 학위체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자격과 직업자격과의 연계체제 구축 (V) (2) 대학원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V)
--	--

나.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공통 문제점

□ 주요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대학원 교육의 한계점(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방안(정책제언)의 공통 특징을 해당연구의 출간 연도별 순서로 개괄하여 제시하면 다음<표 II-11>과 같음(<표 II-10>에는 (V)로 표시되었음)

<표 II-11> 대학원 교육 관련 주요 선행연구의 공통 특징

문제점/한계점	발전방안/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교육의 정체성 및 국제적 통용성 부족 ○ 수급 불일치와 핵심인재 양성 부족, ○ 대학원 질관리 체제 미흡 ○ 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 ○ 대학원 학위와 직업간의 연계 부족 ○ 대학원 관련 법체계의 비체계성과 모호성 ○ 대학원 교육의 질관리, 질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분류 체계 개선 ○ 대학원 질관리 체계 구축 ○ 학위체계의 국제화 및 직업자격과의 연계 구축 ○ 일반/전문대학원의 이원체제 구축 ○ 교육자격과 직업자격과의 연계체제 구축 ○ 대학원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원 육성 ○ 대학원 질관리를 위한 대학원 공시제도 강화 ○ 대학원 교육재정 지원 강화 ○ 노동시장의 수요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학위과정 운영 ○ 현장중심적인 전문실무학위 활성화 ○ 대학원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정비 ○ 대학원평가체제 인증제 도입과 신뢰성, 타당성, 투명성 확보

□ 위의 내용 중 대학원 교육의 주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법’은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의 목적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학원 운영에 있어 본래 목적의 상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야기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제2항에서 학술연구, 전문인력 양성, 계속교육 등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의 목적이 구분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학원은 목적이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음
- 각 대학원 유형별 체적인 설치목적, 양성하고자 하는 인력, 학위의 종류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차별화된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음. 이에 따른 대학원별 정체성이 정립되지 못하여, 각 교육기관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으로 인해 대학원수 및 입학생수는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지만 우수 인적 자원의 연쇄적 유출로 인한 질적 저하의 악순환이 발생함

- 수도권 상위 대학 졸업생 해외 유출 → 지방 대학 졸업생의 수도권 대학원 유출 → 지방 대학원 공동화 현상의 악순환이 발생함
- 우수 학부생 유출, 대학원 미충원 등의 상황이 악순환 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있는 학부과정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시킬 유인이 발생함
- 특수대학원의 지나친 양적 성장은 국내 박사학위자의 질적 수준의 문제로 확대되어 논의되기도 함

□ 대학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교육은 질적 수준이나 학문적 수월성이 높지 않고,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인력의 양성에 부응하지 못하여 창조적 지식을 창출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력에는 미달함

- 대학원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우수 연구인력 확보차원에서 대학원의 진학률이 감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졸업자의 경우 취업률도 감소하였지만, 박사학위과정으로의 진학률도 5%로 학문후속세대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술연구 인력도 감소하는 추세임

□ 정부의 규제 중심의 대학원 정책으로 다변하는 산업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함

- 대부분의 전문대학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문인력 자원의 고른 분포를 저해할 수 있음. 지방의 경우 중소기업의 석사급 관리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전문대학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문인력의 적시 공급에 한계가 있음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등 산학협력의 중심축이 여전히 학부에 있으며, 대학원생의 높은 기술력이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기반도 미비함
- 법령에 근거 없는 평일 주간 중심 운영, 설치 사전심사, 학·석사 통합과정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전문대학원의 경직적인 운영을 초래함

□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진단 시스템이 미비함

- 대학 인지도, 평판 등 주관적 요소가 아닌 객관적으로 대학원의 질적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함
- 대학원 운영 주요 지표의 정보공개가 미진하여 학생 및 국민의 선택기회 및 알권리

가 침해되며, 대학원 간 경쟁 유도 기제도 부족함

- 대학원을 포함한 재정 지원 사업 등 대학원의 질적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이 부재함
 - 정부의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이 대부분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우리나라 R&D 수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평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학부 및 대학원(특히 석사단계)에서의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3. 외국의 대학원 개혁 사례 및 시사점¹⁾

- 외국 주요국인 미국과 일본의 대학원 개혁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 및 연구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각 국가의 대학원 교육 및 연구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가. 미국

- 연방정부나 주 정부는 대학에 장학금, 연구비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통해 제한적인 선에서 영향을 주고 있음. 이와 같이 미국의 대학원은 자율적인 주도하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학원 교육지원 개혁 사례

-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IGERT 프로그램
 - IGERT의 목적은 1997년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미국 대학원 이공계열 박사과정 학생을 중심으로 미래 연구와 교육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 먼저 최근 교육 및 연구분야에서 요구되는 학문 간의 융복합을 강조하는 것임. 즉, 생물, 화학, 컴퓨터 & IT, 기술, 환경, 지구과학, 과학, 기술, 재료과학,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등의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기존의 학문 분야별 교육과는 차별되는 새롭고 창의적인 대학원 교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중시함(NSF, 2012)
 - 둘째, 대학원생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학문적 지식과 정보가 실제 문

1) 이 부분은 이정미 외(2013)의 연구를 주로 참조하였음

제해결을 위해 응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까지 모색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을 강조한다는 것임. IGERT 프로그램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많은 대학원의 프로젝트는 연구의 성과에 정책적 방향이나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단계까지 포함한 과정이 설계되어 있음

- 셋째, 유색인종 학생의 참여를 장려하고, 다른 국가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장려한다는 것임. 이는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백인이나 아시아, 특히 동양의 문화적 배경의 학생에 비해 이공계 분야 참여가 저조한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비 백인계 학생의 해당 계열 인재 양성을 지원함
- 이와 같이 IGERT는 과학기술 분야에 학제간 융복합 혹은 통합 프로그램 장려를 통해 관련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실증적 경험, 해결방안을 정책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책개발 능력 등 새로운 분야를 이끌어 나갈 리더로서 필요한 전문성 함양을 중시함

□ 대학원 연구지원 개혁 사례

- 일리노이 대학원의 포컬포인트 프로그램
 - 포컬포인트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가와 인류사회가 당면한 공헌할 학문 발전, 학제간 연구와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 대규모 연구 과제의 개발부터 수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학원생의 참여 확대, 일리노이 대학원과 국외 연구 기관, 대학, NGO등의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일리노이 대학원과 국내 연구 기관 및 미국 내 타 지역 대학과 협업을 장려하여 대학원 교육의 다양성 진작, 전 대학 내 기업가 정신 확산하기 위함
 - 선정된 연구의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면,
 - 각 단과대학, 혹은 학과 단위에서 주도하는 전략적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 분야 수립함. 예를 들어, 공학, 과학기술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목적으로 세워진 베크만 인스티튜트는 건강, 태도, 생물, 정보, 기술, 사회와 환경정책의 사회적 측면 등의 주제를 주력 연구분야로 정하고 중점적인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음
 - 주력 연구활동 분야와의 연계를 도모, 새로운 교육과정 및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함
- 이와 같이 포컬포인트 프로그램은 학문간 연계와 융합, 기관 간 협력 등을 강조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기반 확산을 장려하고, 또 기업가 정신 확산과 같이 연구 성과의 응용 및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음

나. 일본

□ 일본은 대학원 교육개혁을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학원의 규모를 확대하였음. 이는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한 고도전문인력의 양성하기 위한 것임

- 2011년 1월 중앙교육심의회는 ‘글로벌화 사회의 대학원 교육’이라는 답신에서 1) 산학관이 협력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의 요청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체계적인 교육의 전개 2) 사회인이나 외국인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생이 장래전망을 가지고 절차적 타마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통해 ‘다양한 커리어 패스의 확립’을 지향하였음
- 학위 프로그램으로서의 대학원 교육을 확립하기 위해 교육정보 공표에 의한 대학원 교육의 가시화, 우수한 학생이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코스 워크에서 연구지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적 교육, 학생의 질을 보증하는 조직적인 교육 및 연구지도체제, 산업계 등과 연대를 강화하였음
- 다음으로 글로벌 사회에 활약할 박사 양성을 위해 독창적인 연구활동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관된 박사과정교육, 성장을 견인할 세계적인 대학원 교육 거점(리딩 대학원), 일본인과 외국인 학생의 구분을 넘어선 협동교육의 추진 등을 제언하였음(中央教育審議會, 2011a)
- ‘글로벌화 사회의 대학원 교육’의 답신을 바탕으로, 같은 해 8월 5일 발표된 ‘제2차 대학원 교육 진흥시책 요강’의 구체적인 시책은 1. 학위 프로그램에 기초한 대학원 교육의 확립(과정제 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맞는 교육, 학생의 질을 보증하는 조직적인 교육 및 연구지도체제의 확립, 실효성 있는 대학원 평가 추진), 2. 새로운 사회의 창조와 성장을 견인하는 박사의 양성(일관제 박사과정교육의 확립, 세계적인 대학원 교육 거점인 리딩대학원의 형성 촉진), 3. 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교육의충실과 학생의 장래 전망을 위한 환경구축(교육정보 공표, 커리어 패스의 확립, 젊은 연구자의 교육연구환경 개선), 4. 대학원 교육의 글로벌화 촉진(국제적 연대와 교류 및 질 보증을 추진하여 국제적 통용성 확보, 외국인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협동교육), 5. 전문직 대학원의 질 향상을 내걸고 있음(中央教育審議會, 2011b)

□ 대학원 교육 개선

- 커리어 패스 지원
- 일본은 고등교육 진학률이 우리나라보다 낮으며, 인구당 대학원 재학생 수도 적은 현상의 원인을 고등교육 수료 후의 진로 불안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정부는

취업률 개선과 정보 공개로 인재의 양적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원 교육 개혁의 중심과제인 ‘커리어 패스’ 지원함(中央教育審議會, 2011a)

- 특징은 취업률 개선을 위해 산학인재육성 파트너십을 통하여 산학연계를 강화하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산학연계에 의한 실천형 인재 육성 사업으로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30개)’, ‘서비스 이노베이션 인재 육성(13개)’, ‘선도적 IT 스페셜리스트 육성 추진 프로그램(8개)’, 과학기술진흥조정비로 조성되는 ‘이노베이션 창출 젊은 연구인재 양성(23과제)’, 역시 과학기술진흥조정비로 조성되는 ‘젊은 연구자의 자립적 연구환경 정비 촉진(42과제)’ 등이 있음(中央教育審議會, 2011a)

□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확대

-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
 - 제3자 평가에 기초한 경쟁원리에 의해 국공사립 대학이 세계적인 연구교육거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개시된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문영역의 박사과정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후, 93개 대학 274개 거점 프로젝트를 채택하여 5년간 지원
 - 프로그램의 성과로는 일본의 연구교육환경 활성화에 공헌, 그 외에 분야를 넘어선 복수교원의 지도에 의한 다양한 교육, 학생의 학습 및 연구환경의 개선, 국내 학생의 연구활동 및 수준 향상, 해외에서 학생의 연구활동 및 수준의 향상, 학생의 경제적 지원의 충실, 국제화 추진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됨
- 글로벌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
 - 21세기 COE 프로그램을 계승하면서 대학원의 교육연구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국제적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7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박사과정 레벨의 전공, 대학부속연구소, 연구센터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41개 대학 140개 거점 프로젝트를 채택하여 5년간 지원
 - 프로그램의 성과로는 대학의 관리가 강화되고, 대학개혁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음. 대학원으로서의 교육연구활동(국내외 교원, 포스닥, 학생의 결집/국제적 교육연구 네트워크 구축/다른 대학 학생 및 교원의 교류촉진/공동연구의 증가 등)에 충실하게 되고, 학생의 논문발표, 학회발표, 해외경험 등이 충실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조직적인 대학원 교육개혁추진 프로그램 GP(Good Practice)
 -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대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인문계, 이농공

- 계, 의료계의 3분야로 나누어 공모를 실시하여 91개 대학 221개 프로젝트를 3년간 지원함
- 프로그램의 성과로는 박사과정 수료자의 취직률 향상,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의 학회발표 수 증가, 기업에 인턴십으로 파견된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수가 증가하였음

다. 시사점

-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특징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장기적이고 폭넓은 지원정책으로 대학원이 자생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원 연구력을 강화한다는 점임. 미국의 일리노이대학은 대학원 연구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하고 있으며, 대학 내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시켜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음. 대학원 교육-연구 정책이 학문적 수월성과 양적 성과만을 강조하는 국내의 사정과 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학제간 연구의 확대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혁신적인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주도하고, 응용학문에 비해 비인기 영역인 인문사회 분야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학과나 계열로 구분되는 전공영역이 타 전공학문과 단절되어 있어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구조적인 접근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는 국내 대학에서도 점점 그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양적 성과를 이룬 현재 시점에서 네트워크의 질적 내실화를 추구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둘째, 프로그램의 조직 및 운영 면에 있어서 참여 교원 간, 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간 연계와 협력을 장려한다는 것임. 다층적이고 복잡한 문제해결이나 대규모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일대학이나 학과보다 다양한 특성과 장점을 지닌 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임. 국내의 여러 대학과 외국의 대학 등 여러 기관이 공조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아직 미흡한 수준임. 다양한 기관과 대학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역량과 특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단일 대학에서 얻기 어려운 연구 성과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대학원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환경의 정비를 통한 대학의 질 제고라고 할 수 있음. 일본 사례에서도 대학원 교육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에서도 강조하고 있음. 정부의 주요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고

실적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방법도 평가하여 내실 있는 교육 및 지도 프로그램 마련하도록 하였음

- 넷째,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하여 산학인재육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일본은 커리어패스를 통하여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대학원 학생들이 장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학업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미나와 인턴십 등의 면에서 산학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음. 국내는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등 산학협력의 중심축이 여전히 학부에 있으며, 대학원생의 높은 기술력이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기반도 미비함. 일본은 중장기 인턴십을 필수 단위화하고, 논문발표에 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어드바이스를 하는 등 수료 후 사회에서 요청되는 능력과 자세 등을 미리 갖추도록 하고 있음. 산학연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융합적으로 접하도록 하여 시야를 넓히고, 연구지도 과정에 산업계의 시점을 도입하여 미리 적응시킬 필요가 있음

Ⅲ. 대학원 비전 설정 및 전략

1. 대학원 발전을 위한 비전 체계

□ 21세기 한국사회는 1) 학령인구의 급감과 초고령화의 도래, 2) 글로벌경제의 통합과 지식기반경제의 심화 그리고 이에 따른 대학원 교육의 필요성 증가, 3)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습득 및 학습활동 간의 연계성 강화, 4) 대학원 교육의 평생학습기능 대두, 5) 융합기술과 학문의 발달로 인한 실용학문탐구경향의 증가, 6) 분권화와 개방화에 따른 대학원 정책거버넌스의 자치·자율화, 7) 국제교류와 협력의 보편화에 따른 대학원 교육의 글로벌화라는 대학원체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음(신현석,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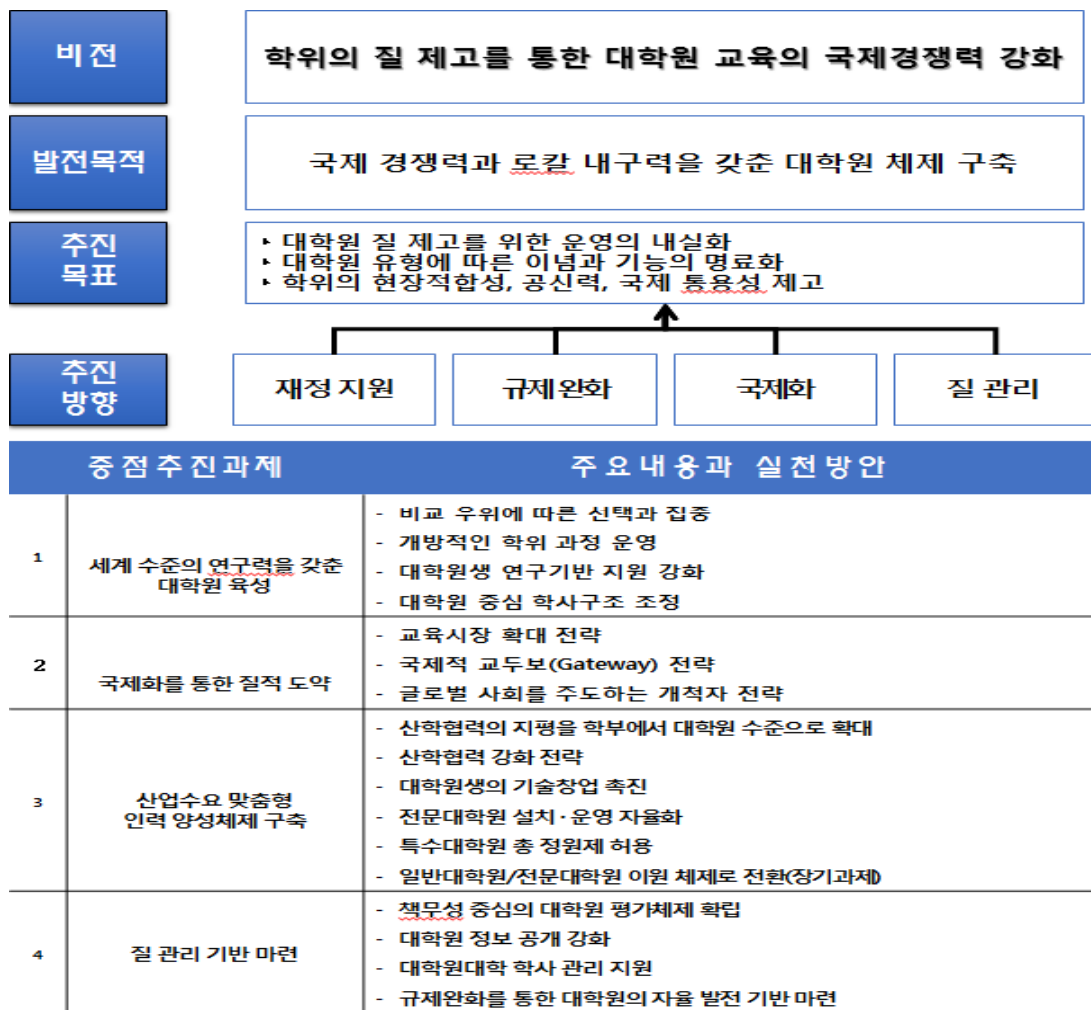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발전과 이익에 부응하는 대학원체제란 국제표준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국내의 사회요구에도 부응하는 체제일 것임. 이와 같은 맥락에 근거하여 신현석(2011: 178)은 한국의 대학원의 미래 비전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대학원체제의 구축’으로 정의하였음. 여기서 ‘한국형’과 ‘글로벌’은 상치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학원의 추구하는 글로벌 경쟁력과 로컬 내구력 간의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상호대응의 관계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아래의 맥락들을 강조함

- 글로벌화가 가능한 대학원과 그렇지 못한 대학원이 어쩔 수 없이 상존하는 한국대학의 현실을 직시할 때, 글로벌화와 로컬화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다양한 대학원들 간의 공존의 상태 하에서 대학원 각자에게 적합한 경쟁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임
-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학원은 글로벌화를 통하여, 로컬화의 추구가 해법인 대학원은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 내구력을 축적하여 생존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대학원발전의 비전이 되어야 함

□ 글로벌 경쟁력과 로컬 내구력이 균형 있게 추구되는 대학원체제는 다양한 측면(예, 정책, 제도, 행·재정, 운영, 교육체제, 인프라, 평가와 인증)에서의 전략적 쇄신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는 1) 이념과 기능의 측면에서 대학원 유형의 재정의 및 명료화, 2) 대학원 교육의 질제고, 3) 대학원제도의 합리화(예, 규제완화), 4) 석·박사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및

호환성(국제표준의 추구, 질적 국제화), 5) 대학원 교육을 통하여 양성되는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등을 성취하려는 다양하고 명확한 목적지향성이 기초가 됨(신현석, 2011)

□ 전술한 논의의 맥락을 반영하여 대학원발전의 비전을 체계적으로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Ⅲ-1]과 같음



[그림 Ⅲ-1] 대학원발전 비전 체계

* 신현석(2011)과 서정현(2006) 및 주요 선행연구가 제시한 발전방안을 참고로 재구성

2. 대학원 발전을 위한 목표: 정책적 지향 가치와 전략

□ 21세기 지능정보화시대에서 창조적 지식의 창출은 전술한 글로벌 맥락에서 연구와 교육의 질이 보장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대학원체제를 동력으로 함. 따라서 글로벌화와 함께 급변하는 21세기 지능정보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미래지향형 대학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및 관리체제의 설계가 요구됨

- [대학원체제 발전목표] 대학원의 연구력과 교육력의 질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장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창의적 고급인적자원을 양성함

가. 대학원체제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방향과 가치

□ 대학원체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추진방향과 전략은 아래에 제시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음(민경찬 외, 2010; 이정미 외, 2013: 427-431)

- 세계수준의 교육·연구경쟁력 확보: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 활동의 성과는 국가사회의 지식생산, 확산, 활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축적과 확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대학원의 교육력과 연구력의 탁월성,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성, 대내외 경쟁력 등은 매우 중대한 주제임. 이는 경쟁력 있는 대학원들이 보유한 원천지식과 기술이 국가산업성장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기 때문임. 따라서 대학원의 교육력과 연구력은 더 이상 보편적 지식의 습득과 범용형 인재의 생산에 머무르면 안 되며, 국내외 어디에서나 통용 가능한 고급형 인재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대학원체제의 탁월성은 결국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효율성이나 일관성을 위해서가 아닌 전략과 확실성을 위해서 적용되어야 성취할 수 있는 가치라는 점에서 대학원정책 및 운영의 체계가 재정의 되어야 함

- [정책추진방향]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원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국내 대학원을 통하여 양성되고 배출되어온 석·박사학위 소지 고급인력들에 대하여 양적 성장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음.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 볼 때, 학비조달 및 취업 등에서 불확실성이 짙은 국내 대학원보다는 사회적으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해외(특히 영미권) 대학원의 선택경향 증가(후진국형 두뇌유출의 가능성 문제로 연결)와 이로 인한 고급두뇌의 자생적 생산 및 선순환적 수요·공급구조 창출의 어려움 등의 문제제기가 있어왔음. 이에, 사회발전에 기여 가능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체제의 재구축이 필요함

- [정책추진방향 1] 국내의 엘리트형 우수학생 육성과 해외의 우수인력 유치의 동시 전개
- [정책추진방향 2] 인적자원시장 친화적 대학원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석·박사학위의 부가가치 제고
- [정책추진방향 3]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대학원 교육과정의 개발

○ 대학원 정체성의 재확립:

모든 대학원들이 연구중심이 될 수 없음에도 우수한 인적자원, SCI 논문이나 특허로 대변되는 연구 성과 등의 몇몇 주요지표에 의하여 우수 대학원들이 평가·선택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아온 그간의 평가를 통한 대학재정지원정책기조는 연구중심 대학원들의 급성장이라는 성과도 나타냈지만 대학원 교육의 측면에서는 낮은 교육성과 및 만족도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노정하였음. 미래의 대학원발전방향은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 창출이 핵심어가 되어야 함

- [정책추진방향] 연구와 교육이 완벽하게 융합된 대학원연구·교육통합모델의 창출

○ 수월성 중심의 개방형 학문공동체 구축:

대학원이 생산한 지식과 기술을 담아낸 결집체인 고급 인재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사회가 갖는 통상적인 기대이나 그간 그 기대가 그다지 부응되지 못한 것은 1) 학과나 전공 간 칸막이식 교육과정의 운영, 2) 강좌의 중복 개설과 낮은 강좌의 질 수준, 3) 교수자의 전문성 관련 문제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따라서 대학 내, 대학 간, 학점 및 연구의 교류, 다양한 학과 및 교수자들 간의 상호협력 등의 대학원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임

- [정책추진방향 1]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를 위한 대학원발전의 기본 가치는 ‘개방’과 ‘협력’
- [정책추진방향 2] 국내외 우수한 교원과 학생들의 교류가 가능한 유연한 대학원환경 구축

○ 정부의 대학원 재정지원정책의 기초 전환: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대학원 재정지원정책의 기초는 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었음. BK21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대학원체제의 인프라를 단기간 내에 구축하는데 일부 기여하였고, 사업예산의 효율적 분배에도 공헌한 바 있음. 그러나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단들의 사업수행방식은 MBO방식에 의존해왔고, 이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 자발적 협력과 동기부여보다는 차별적 보상과 처벌이 우선되는 문제, 공적 성과의 측정 어려움, 기업의 사업수행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점검방식을 대학원 교육과 연구에 적용할 때 생기는 불합리한 요소들, 극도로 양화된 목표관리대상들(예, 논문 수, 기술개발 건수) 등의 문제점들을 드러냈음. 미래지향적인 정부의 대학원 재정지원정책은 교육성과의 불가시성과 장기적 시현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학원의 사회발전 비전 및 목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즉, 대학원의 자발적 성취동기가 고취되고, 모험과 실패를 수용하면서 학문공동체의 성장을 질적으로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지원의 리더십이 요청됨

- [정책추진방향 1]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에 기초한 정부의 대학원평가와 재정지원정책 설계
- [정책추진방향 2] 대학, 정부, 기업 간의 역할·기능·협력모형 재구성하여 주체별 차별화와 연계성 확립(이 과정에서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나. 대학원체제 발전을 위한 핵심 이해당사자의 역할 정의

□대학원발전에는 정부, 대학, 대학의 구성원들 등 다양한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므로, 대학원체제의 질적 개선의 측면에서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재정의 될 필요가 있음(반상진 외, 2003: 181-182). 이는 대학원 발전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

○ 정부의 역할

- 전술하였듯이 미래지향적 대학원발전의 주요 가치는 자율성임. 따라서 대학원이 자율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하여 내부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방법,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함. 즉, 정부는 대학원의 자율역량배양을 위한 행·재정 및 정보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
- 정부는 대학원의 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한 평가의 틀을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여 제시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원의 자기 혁신을 이끄는 데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함
- 정부의 대학원정책은 획일적 개입이나 간섭이 아닌 대학원의 자율적, 창조적 실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신지식 생산을 가능케 하는 고급인적자원의 개발로 이어져야 함

○ 대학원의 역할

- 대학원발전의 핵심 주체는 결국 대학임. 따라서 대학들은 우수 대학원생의 선발과 양성, 대학원 학사제도의 개선과 관리, 교육 및 연구풍토의 개선과 정착 등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질적 수월성을 스스로 확보하여야 할 책무성을 지님
- 한편, 대학들은 국·공·사립의 설립유형별, 수도권과 지방의 지리적 여건에 의한 특성 차이에 따라 차별적 대학원발전전략과 운영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대학구성원들의 역할

- 대학은 교수, 학생, 행정직원으로 구성된 복잡한 조직이며, 학문과 연구의 질과 대학원 교육의 질은 교수자의 교수·연구능력, 행정직원의 교육서비스의 질과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등에 의하여 결정됨
- 따라서 대학원 교육에 관한 총체적인 질 관리의 핵심 과제는 1) 대학원생들의 교육만족도 수준, 2) 교수와 행정직원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 개선 노력과 정도, 3) 교수, 학생, 행정직원 간의 상호 관계성의 정도 등을 포함하여야 함(<표 III-1> 참조)

<표 III-1> 대학원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가치

부문	주요 가치	정의
교육	전문성	대학원수준의 전문지식
	충실성	강의수준 및 내실화 정도
	개방성	인접학문과의 교류여건 및 강좌의 다양성
연구	수월성	연구능력 배양 및 습득여건
	활용성	연구능력의 활용경험 및 성과
행정서비스	교육활동지원	대학원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여건
	학사업무지원	학사업무의 체계적 수행정도

* 출처: 신현석·이은구·김검훈·노명순(2008: 62)

- 교수, 학생, 행정직원 간에 형성되는 대학의 건전한 학문문화가 대학원 교육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잘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 연구하며 열정적으로 배우는 대학원생, 이들을 물적, 인적자원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대학원 행정체제가 수평적, 상호 참여적 관계로 형성되어야 함

3. 대학원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정책 추진 원칙과 방향

가. 정부의 대학원 재정지원평가정책의 원칙

□ 글로벌 경쟁력과 로컬 내구력 확보를 지향한 대학원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및 관리체제는 큰 틀에서 1) 질 관리, 2) 자율화, 3) 지속가능한 재정지원(평가)을 지향하여야 함

○ 대학원체제의 질 관리

- 대학원체제를 질적으로 관리하여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담보하는 것은 대학원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 토대임
-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해서는 대학원체제 전반을 면면히,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이 해당사자들이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축·제공하여

야 함

- 따라서 대학정보공시의 대학원수준으로의 구체적 확장과 선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청됨

○ 대학원 구조화와 운영의 자율화

- 대학원 자율화의 핵심은 자율적 구조화가 가능한 대학원의 유형화를 도모하여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대학원 유형 간 융합, 호환,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선진적으로 통합·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원들 간 드러나는 환경적, 상황적 차이에 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지원하고, 이에 상응하여, 대학원과 대학원 구성원들의 책무성을 요구하고 이를 재정지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대학원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평가

- 정부가 평가를 통하여 실시해온 대학원재정지원사업은 그간 노정된 경직성과 획일성 문제의 해결하고, 유연성, 자율성, 책무성, 융합성, 협력성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그러려면, 정부가 계획하여 주도해온 Top-Down방식의 대학원재정지원정책이 아닌 대학원들이 각자의 특성과 이념을 반영하여 마련한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Bottom-Up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민경찬, 2010)

나. 정부의 대학원 재정지원평가정책의 방향

□ 노정된 문제점(김성수, 2013: 76-77: 민경찬, 2010)

- 대학원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온 정부의 지난 대학원재정지원정책들(예, BK, WCU 등)은 평가에 근거한 차등배분방식 하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무한 경쟁, 교육과 출판에서의 영어 우대, SCI로 대변되는 대학연구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그 결과 국내 우수 대학들을 중심으로 국제논문발표 수 증가, 영어강좌

의 증가의 효과가 있었음. 이는 정부가 평가를 통하여 공급자인 대학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음. 그러나 국제논문발표나 영어몰입교육이라는 지표가 우리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력이라기보다는 국제화라는 일면에만 제한된 전체가 아닌 부분 전략이었을 수 있고, 이는 대학원의 연구개발을 심화시키는 것과는 상당한 정책적 궤적의 차이를 드러냈음

- 우수 대학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대학현실은 대학들을 수직적으로 계층화하고, 자연스럽게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하며, 균형발전을 제약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동해왔음.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우수 대학원의 전략적 재정지원정책은 경쟁에 의한 대학원들 간 불균형적 재정지원정책이었으므로 오히려 정부의 대학재정지원평가정책의 대의와 이를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어왔음. 게다가, BK사업에서 보듯이, 특정 재정지원사업의 장기화는 정부가 대학원체제의 수월성만을 정책적 단일 가치로 삼는데 있어서 사회적 비판을 초래하고 있음

□ 미래지향적인 방향(강인수, 2002: 김성수, 2013: 77-78: 이정미 외, 2013: 458-460)

- 대학원체제의 경쟁력을 글로벌과 로컬이 모두 반영된 글로벌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정부의 대학원재정지원평가정책은 수도권의 우수 대학원들을 주로 의식한 경쟁적 수월성만을 지향할 수 없으므로, 지역의 우수 대학원들의 교육과 연구의 목적을 지역발전의 동력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하여 차등적인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함. 지역산업과 연계된 대학원 교육과 연구, 즉 산학협동의 관점은 지역균형발전, 지역 대학원체제의 내구력 강화, ‘글로벌시대에서 지역화가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신지식동력의 창출의 면에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음. 이에, 정부의 정책방향은 대학원의 연구 성과가 산학협력의 기반 위에서 산업적 지역개발유인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정부의 대학원 재정지원평가정책의 큰 틀은 수도권의 우수 대학원들과 지역의 우수 대학원들 간의 균형적 발전모형 존중, 수월성과 특성화 조화, 대학연구와 지역발전 간의 실질적 연계 효과가 가능한 메커니즘의 구축이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함
- 대학원의 자율적인 역량 강화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재정지원평가정책은 대학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특성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등 유형 구분에서 드러나는 부적절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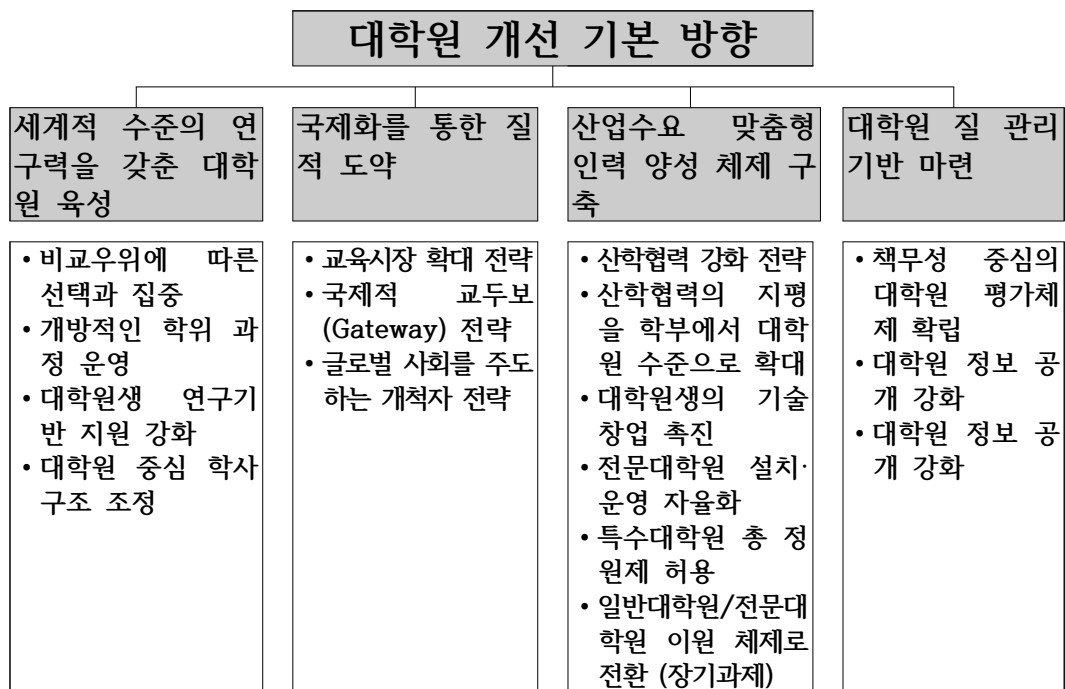
나 차별성 부재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대학원 유형의 인위적 구분이 아닌 통합적 체제모형의 전환을 고민해보아야 하며, 이럴 경우, 정부의 대학원재정 지원방식도 유형별 구분에 의한 것이 아닌 대학원 자체의 역량, 발전의지, 계획, 전략, 비전, 잠재성 등을 두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겠음

- 정부가 추구하여야 할 선진적 대학원평가는 학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대학원체제의 세부 정보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이해당사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학원정보공시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이는 우리 대학원들의 자율성, 책무성, 질적 수월성, 국제화,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의 구축 등을 유도하는 대학원체제의 질적 구조조정의 초석이 될 것임

IV. 대학원 정책 발전 방향

□ 전술한 바와 같이, 주요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대학원 발전방안은 “대학원 분류 체계 개선, 대학원 질관리 체계 구축, 학위체계의 국제화 및 직업자격과의 연계 구축, 일반/전문 대학원의 이원체제 구축, 교육자격과 직업자격과의 연계체제 구축, 대학원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원 육성, 대학원 질관리를 위한 대학원 공시 제도 강화, 대학원 교육재정 지원 강화, 노동시장의 수요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학위 과정 운영, 현장중심적인 전문실무학위 활성화, 대학원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정비, 대학원평가체제 인증제 도입과 신뢰성, 타당성, 투명성 확보”로 제시되었음

- 이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체제 구축이라는 발전목적에 부합하게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을 갖춘 대학원 육성, 국제화를 통한 질적 도약,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질관리 기반 마련”의 4개 영역으로 재구조화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IV-1]과 같음



[그림 IV-1] 대학원 개선 기본 방향

1.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을 갖춘 대학원 육성

□ 비교우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

- 연구역량을 갖춘 상위 대학원을 국제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R&D 인력배출과 경쟁우위의 교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원 교육 내실화
 - 확실적인 인재를 배출하던 수준에서 각 대학 및 지역별로 전문화·특성화하여 대학원 인력양성체제를 다변화
 - 각 대학의 여건과 특성, 역량에 맞게 다양한 대학원 교육 선진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대학원 교육의 질을 제고
- 대학의 사업단(학과, 전공)별로 연구와 교육 중 비교우위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특화하고, 이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함



[그림 IV-2]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구조(안)

- 상대적으로 연구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학원은 지역의 산업 수요, 학생 충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전략 목표 특화함
 - 지역 산업 여건을 고려한 전공 분야를 특화, 중소기업 중간관리자 역량교육 등 대상 특화, 평생교육 / 학부 교육 중심 운영 등
 -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구조조정을 포함시키고, 실무형 석사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혁신
 - 개별 대학에서는 학부의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에서도 경쟁력이 없는 학과를 과감하게 축소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개방적인 학위 과정 운영

-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연계한 연계전공 및 학제간 공동 전공 제도 마련
 - 융·복합적인 지식과 폭넓은 시야,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가진 고급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의 연계체제 속에서 각 학문의 특·장점을 창조적으로 결합·응용할 수 있는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
 -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 수업을 통해 지식의 외연적 범위와 내용체계를 확장할 수는 있도록 학위 수여 조건을 조정하여 복수학위, 부전공 학위의 활성화
 - 대학원 수준의 복수학위와 부전공의 학사운영을 학생들의 융·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최소 전공이수학점을 조정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이론 중심의 학위 과정과 실무중심의 비학위 과정 간 교차수강이 가능하도록 함

□ 대학원생 연구기반 지원 강화

-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석·박사생의 학술·연구 참여 기회를 확대
 - 전임교원(학과 소속) - 전임연구인력(연구소 소속) - 석·박사 과정생(연구보조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 내 교육·연구 공동체 활성화
 - ※ 인문한국(HK)사업, “대학중점연구소사업” 등 대학부설 연구소 지원 사업
- 다양한 박사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박사학위 소지자가 연구 기회 부족으로 인해 조기 포기하지 않도록 박사 후 학문후속세대 육성 지원을 확대
 - ※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박사후연수, 학술연구교수)
(이공) 박사후연수, 리서치펠로우,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지원사업
- 정부 연구 프로젝트에서 대학원생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현실화
 -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 상향 조정

□ 대학원 중심 학사구조 조정

- (정원조정 비율 차등) 현재의 단일한 정원 조정 비율을 대학원의 역량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함
 - * 대학원 평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기준 마련
 - ※ 「대학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별표 1의6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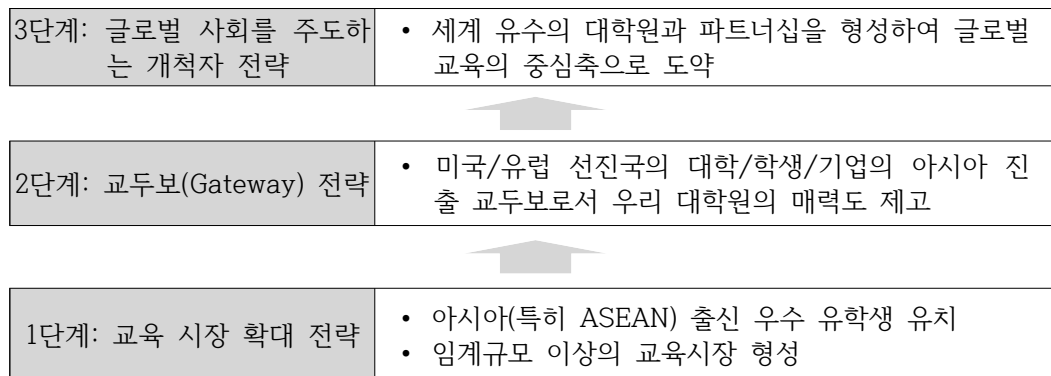
<표 IV-1> 대학원 중심 학사구조 조정(안)

현행 정원 조정 기준	개선(안)	
학부 → 일반/특수대학원(석사) : 1.5:1 학부 → 전문대학원(석사) : 2:1	상위대학	학부 → 석사 : 1:1 비율 조정
		박사 ↔ 석사 : 1:2 상호 조정 허용
박사 감축 → 석사 증원만 허용 (1:2)	일반대학	현행 유지
	하위대학	학부 → 석사 : 2:1 비율 조정

- (선도대학원 육성) 연구역량 있는 상위 대학에 대해 대학원 중심 학사구조 개편을 유도하여 대학의 인프라를 연구역량에 집중함
 - 학부 → 대학원(석사) 정원 조정비율을 現 1.5 : 1 (전문대학원 2:1)에서 1 : 1 비율로 완화하고, 석사 → 박사 정원 조정도 허용(2 : 1 비율)
- (학과 신설 규제 재검토) 총 정원 범위에서 대학원 학과 신설 시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하는 규제* 재검토
 - * 「대학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조의3 제4항 개정 검토
 - 융합학과, 새로운 산업수요(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신성장동력 분야 등에 대한 자율적인 학과 개편 촉진
 - ※ 정원 변동이 없는 경우 학과(전공) 개편과 교원확보율은 서로 무관한 사항
- (유학생 자율 규제)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예시 규정을 삭제* 하여, 교육여건을 고려한 자율 규제로 개선함
 - *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교육부 지침) 수정

2. 국제화를 통한 질적 도약

□ 대학원의 질 개선을 위한 단계별 국제화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IV-3]과 같음



[그림 IV-3] 단계별 국제화 전략 방안

□ 교육시장 확대 전략

- 우수한 해외 대학원생 유치를 통해 우리 대학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시장의 외연(capacity)을 확대함
 - 특히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로 하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ET(환경공학기술), 의료 분야 등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
 - ASEAN 등 개발도상국 대학의 박사학위 없는 교수를 정부초청장학생(GKS)으로 우선으로 선발함
 - 의료, 법률 시장 등을 개방하여 전문분야 대학원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함
 - 국내외 대학원간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환학생, 전공연수, 공동연구,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장려하여 유연한 대학원환경 구축
 - 전문화된 분야의 외국 우수 대학원 및 전문 연구기관과의 교육·연구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하여 국제 협력 기반 마련
 - 외국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간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
 - 해외 진출 기업과 연계하여 현지 관리자 등에 대한 맞춤형 실무 교육과정 및 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함

□ 국제적 교두보(Gateway) 전략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대학에서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써 우리 대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 교육시장 개방을 가속화함

- 영어수업 확대, 외국어 행정 지원,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 등 대학 차원의 언어 장벽 해소 노력을 강구함
- 외국 대학과의 공동 교육운영 체제를 지원하여 외국 대학원과의 공동 연구 및 교육의 기회를 증가시켜 국내·외 대학 간 교육과정 교류·협력을 활성화함
- 국내대학에서 선진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공동/복수학위를 수여하는 ‘한국형 Joint program 모델’을 개발함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에 정기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국내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유도함

□ 글로벌 사회를 주도하는 개척자 전략

- 글로벌 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고등교육 시장의 개방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고등교육 현상이 보편화됨에 따라 수요중심으로 운영되던 고등교육체제의 경쟁력 제고 전략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됨
- 고등교육 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대학의 경쟁력은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학원은 글로벌화를 통하여, 로컬화의 추구가 해법인 대학원은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을 둔 내구력을 축적하여 생존의 경쟁력을 창출
- 추종자가 아닌 선도자로서 우리 대학원의 우수 프로그램을 적극 수출하고, 선진국 대학원과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국제교류를 주도함
- (교육 콘텐츠 진출) 교육 프로그램 수출, 교직원 교류 등 국내 우수 교육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정 정비*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국외 캠퍼스 설립) 대학의 국외 캠퍼스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대학 학점인정범위를 1/2 → 3/4로 확대하여 국외 캠퍼스 설립을 촉진함
- (국외 분교 설치) 분교 설립 절차 완화를 통해 분교 설치를 활성화함

3.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체제 구축

□ 산학협력 강화 전략

- 지역사회 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력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실제 유효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함
-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차원에서 산업계 수요 맞춤형의 석박사과정을 개설

- 산학협력 주제 간 상호협력으로 서로 간의 경쟁력을 기르고 발전을 도모하며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식 생태계 조성
 - 대학은 혁신적 지식 생산의 주체이자 지식·기술 이전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산업계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에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하여 지식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 정부는 산학 연계의 장애 요인이 되는 제도 정비를 통한 연계 네트워크의 지원
-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직능단체나 산업체의 참여와 지원을 통한 산업계의 요구 반영

□ 산학협력의 지평을 학부에서 대학원 수준으로 확대

- 산학협력 선도대학 후속사업(Post - LINC)을 대학원까지 확대하여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선도 인력을 육성함
 - * 대학원 수준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신성장 지식 선도형' 유형 신설
- 창조융합기술능력을 갖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창의설계 과목, 프로젝트 학습(PBL) 등 대학원 수준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함
- 지역대학의 이공계 석·박사생을 양성하여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해당 기업으로 취업을 촉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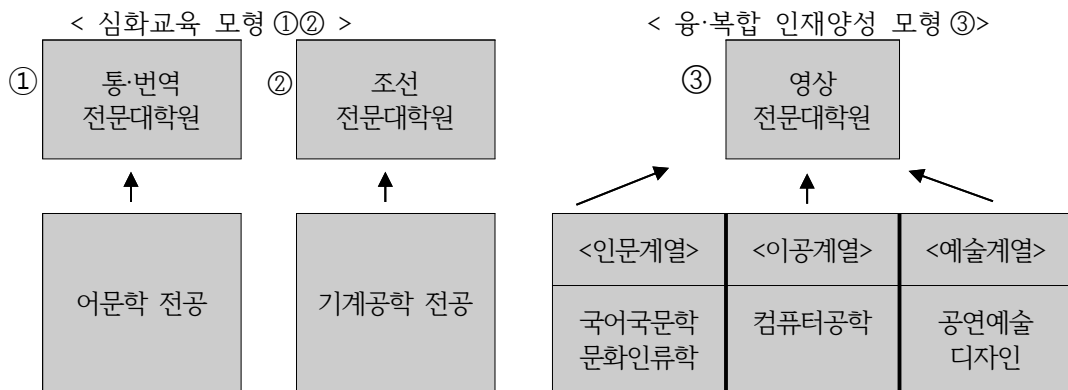
□ 대학원생의 기술창업 촉진

- 우수 기술 보유로 창업기업 생존율이 높은 석·박사급 기술창업을 지원함
 - 대학, 동문,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가칭)대학창업펀드*'를 조성하여, 기술창업을 시도하는 대학원생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함
 - * 중소기업 모태펀드 내에 별도 계정 신설 등 검토
 - 교수의 지도를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실험실(Lab) 창업을 유도함
- 대학원생 창업이 지도교수의 업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실적에 학생창업 실적을 포함

□ 전문대학원 설치·운영 자율화

-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중견전문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전문대학원 자율성을 강화함
 - * 별도 관리되고 있는 법전문, 의·치·한의전원의 경우 적용 제외

- (설치 자율화) 석사 과정은 일반/특수대학원과 동일하게 정원 범위 내 자율설치(법정 요건 준수 여부 검토)를 허용함
 - 박사과정은 설치 사전심사, 정원 조정 기준 상향등 엄격 관리
- (학·석사 통합과정 허용) 학부 통합 5년제 전문대학원 운영이 가능하여 분야별 핵심 인력, 융·복합 분야 등 특화된 인력 양성을 촉진함



[그림 IV-4] 전문대학원 운영 개선 모형

* 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비율을 학부 특정학과와 연계하여 설계

- ‘설치 시 관련 학부 폐지’ 조건도 삭제함
- (주·야간 수업 자율) ‘전일제 주간과정 중심 운영’ 지침을 폐지하여, 학칙에 따라 주간, 야간, 주말 수업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학교여건, 학과특성, 학생상황, 산업수요 등에 따라 수업의 형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재직자 학생 등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특수대학원 총 정원제 허용

- 동일 대학 내 특수대학원에 대해 일반대학원과 같이 총정원제를 적용함
 - * 일반대학원은 대학별로 1개씩 설치되며, 학과별 정원이 할당되어 있지 않고 총 정원으로 관리되며, 매년 학생 모집 현황 등에 따라 학과별 정원 배분
- 대학 내 여러 특수대학원을 하나의 대학원처럼 운영하여 수요에 따른 정원 배분, 우수 특수대학원 집중 육성 등 전략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이원 체제로 전환 (장기과제)

- 특수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통합하여 대학원 체계를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으로 이원화를 검토함
 - 전문대학원의 설치 분야가 확대·보편화 되었으며, 특수대학원과 교육과정(전문교육) 및 수여학위가 동일하여 양자의 구별실익 없음
 - 단기적으로는 특수대학원을 점진적으로 정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정기간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특수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유도함
 - 특수대학원이 전문대학원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기 위한 여건 마련
 - 전문 / 특수대학원 통합 여건 마련 후 제도 정착에 따라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함
- 법전원, 의·치·한의전원 등은 특별 규정에 따라 별도로 관리함

4. 대학원 질 관리 기반 마련

□ 책무성 중심의 대학원 평가체제 확립

- 대학이 스스로 자생적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체제 개선
- 대학평가는 대학의 자율을 최대한 인정해 주는 방향이어야 하며, 부실미흡 대학원에 대해 정부가 대학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 교육시장에서 경쟁성을 상실한 대학원을 자연 도태시키는 방안과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대학원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법률적 장치를 구비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

【제1안】부실·미흡 대학원에 대한 진단·컨설팅 평가를 도입함

- 부실 우려 일반대학원(10~20%)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 * 선정 기준 : ① 법정기준(교원확보, 전임교원 강의비율 등) 미달 또는 ② 지표별 하위 20%
 - 진단·컨설팅 결과에 따라 학부 또는 특수/전문대학원 중심 운영 권장
 - ① 학부로의 정원 이동(대학원:학부 정원 2:1 비율) 또는 ② 특수/전문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 등 퇴출 경로 마련
 - (장점) 부실·미흡 대학원의 퇴로를 마련하여 질 관리가 가능함
 - (단점) 대학원 구조조정 방안으로 대상대학의 저항이 우려됨

【제2안】‘정보공시를 강화’하여 ‘대학원 자체 진단·평가’ 추진

- 대학원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지표별 척도를 제시하여 대학원이 스스로 진단하는 자체평가 체제를 구축함
 - 취업 직종 현황, 졸업소요기간, 학과별 장학금, Lab 운영방식 등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정보공시를 확대함**
 - 현재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대학원 **자체평가에 연동하여 추진**
 -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등에 따라 대학은 2년 주기 자체평가 실시 및 정보공시
 - 대학원도 학부와 별도의 자체평가 실시('15~,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장점) **객관적인 진단도구를 제공하여 대학원 스스로 진단 가능**
정보 공개에 따른 **수요자 선택권 확대**로 대학원의 **경쟁 유도**
 - (단점) **부실·미흡 대학원에 대한 질 관리 수단 미비**

□ 대학원 정보 공개 강화

- 각 대학원의 교육연구여건의 실태와 개선 노력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대학원 운영의 주요 지표를 학생, 학부모, 기업체, 언론 및 기타 사회단체와 시민이 용이하게 취득하여 활용하도록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내 대학원 정보공시 개선·보완
 - 대학원의 교육·연구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학원 간 선의의 경쟁 유도
- 현행 대학원 정보공시를 개선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대학원 평가에 반영되도록 함
- 대학원생 연구실적, 예산 및 행정지원 등 학부와 독립된 대학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확대
- 취업 직종 및 유지 취업률, 졸업소요기간, 장학금 등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의 지표 확대
- 대학원에 대한 재정과 투자, 예산, 교육과정 등 투입과 과정 지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표 확대
- 정보공시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공시 원자료를 활용한 비교분석 정보를 제공

□ 대학원대학 학사 관리 지원

- (학사 멘토링제) 학사 운영 관리 우수 대학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대학원대학 학사, 학위 관리 지원
 - * 학사관리 우수 대학원 표창을 받은 대학 등 선정
 - 학교규모,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1로 매칭하고, 멘토 대학에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 (학사·학위관리 우수모델 개발) 학생 선발, 학사 운영, 학위 관리 및 졸업 등 단계별 우수모델 개발 보급. 대학원대학 학사 관리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표 IV-5>와 같음

<표 IV-2> 대학원대학 학사 관리 지원 방안

학생 선발	학사 운영	학위 관리	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전형 유형 ■ 입학자격과 시험 ■ 경력 및 자격인정 ■ 외국인 유학생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연한 ■ 학점 및 이수과목 ■ 교과목 구분 ■ 학점 교류 ■ 현장실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논문 학위취득 요건 ■ 학위논문 자격요건 ■ 학위논문 심사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심사 절차 (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연구윤리 등) ■ 유학생 졸업관리

참고문헌

- 강인수(2002). 대학원 교육의 이념과 기능. 대학교육, 11/12, 13-21.
- 김성수(2013). 한국 대학원지원정책의 진화과정 분석: BK21 및 WCU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7(2), 53-79.
- 민경찬·김성기·김하석·백상기·백성준·유현숙·이병욱·이경호(2010). 대학원 교육 선진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보고서(RR 2010-07).
- 박영범(2012). 대학원의 교육·연구 경쟁력 확보 방안. 교육과학부
- 반상진·신현석·이석열·이은구·김겸훈(200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방안 연구(교육정책연구 2003-일반-19). 교육인적자원부.
- 반상진·신현석·이석열·이은구·김겸훈(2004). 대학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체제적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2(2), 255-277.
- 서민원(2014). 대학원대학 질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부.
- 서정현·신현석·반상진·이석열·조경덕(2006). 대학원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체제 개편 및 제도개선 시행방안 연구(정책연구과제 2006-지정-02). 교육인적자원부.
- 송창용·김유미·김혜정(2015) 석·박사조사(2015): 국내신규석·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창용·이은혜(2013). 대학원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를 위한 학위제도 개선 방안. 이슈페이퍼 2013-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현석(2011). 대학원 체제의 미래 비전과 추진방안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7(1), 156-192.
- 신현석·이은구·김겸훈·노명순(2008).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대학원 교육의 질 만족요인 탐색. 교육문제연구, 31, 49-77.
- 이석열·신현석·반상진·안선희·이영학·이호섭(2015).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마련 방안 연구. 교육부.
- 이정미·김은영·이길재·임소현·장덕호·한경희(2013).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RR 2013-1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고등교육·취업통계편.
-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Lee, Gil Tae(translated) (2002). Creative class: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서울: 전자신문사.
- Hawkins, J. (2001).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London: Penguin Pre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12). Doctorate Recipients from U.S. Universities: 2011. Arlington, VA(NSF 13-301). December 2012.

OECD(2014). *Measuring innovation in education: A new perspective.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ECD Publishing.

Trow, M. (1973). Problems i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higher education. 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Berkeley. California.

中央教育審議会(2011a). グローバル社会の大学院教育ã答申 - 世界の多様な分野で大学院修了者が活躍するために - .

中央教育審議会(2011b). 「第2次大学院教育振興施策要綱」(案)についてã大学分科会ã大学院部会 第 55回ã参考資料.

IMD(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97)
 sci 논문피인용 상위 1% 논문건수 국가순위(미래창조과학부,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Id=mssw313&artId=1294277>, 2016.06.24. 최종검색.)
 sci 1인당 논문수 및 인용도 순위(미래창조과학부,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Id=mssw311&artId=1289314>, 2016.06.24. 최종검색.)
 2015 QS 세계대학평가
 (<http://www.topuniversities.com/qs-world-university-rankings>)

대학원 발전방안 연구

발 행: 2016년 8월 14일

발행인: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발행처: 교육부 지정 영남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주 소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중앙도서관 1502호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전화: 053)810-3684

홈페이지: <http://www.hepri.yu.ac.kr>

인쇄처 대구프린팅(053-811-0334)

<비매품>